

# 오리고기 외식산업 판매확대 ‘오벤져스’가 뭉쳤다



지구를 지키는 미국 슈퍼 히어로 영화 '어벤져스'가 있다면 대한민국 오리산업을 지키기 위해 '오벤져스'가 뭉쳤다. 지난 9월 14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제2축산회관에서 한국오리협회와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 주최로 '착한소비 증진 공동마케팅 상호협약식'이 열렸다. 오리고기 중량단위 판매정착 캠페인과 병행한 이번 행사는 오리고기 외식산업 판매확대와 외식업 프랜차이즈와의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리산업을 위해 뭉친 김만섭 오리협회장과 최문길 미트더식세스 대표, 이재훈 세프를 비롯해 소비자대표로 참석한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까지 한 자리에 모인 것. 이날 행사를 중심으로 오리중량단위 판매 등 오리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미래 방향을 가늠해 본다.





한국오리협회-오리자조금-포차천국-유명셰프  
착한소비 증진 공동마케팅 상호협약

### 오리고기 외식산업 판매확대 '한마음'

세계적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는데 이어 앞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가세하면서 외식산업은 사실상 암흑상태에 돌입했다. 이번 협약은 외식산업에서의 오리고기 판매확대와 소비자 인식개선을 통한 일상적 메뉴로 오리고기에 소비촉진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오리고기 중량단위 판매정책과 다육류 판매식당에서의 오리고기 추가 판매확대를 목표로 2020년 외식산업 사업 확장의 기반 마련을 위해 오리자조금이 꾸준히 노력해 왔던 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프랜차이즈업체에 오리고기 메뉴가 추가되고 국내산 오리고기 공급이 1년간 추진된다. 또한 오리고기 판매확대를 위한 공동 마케팅과 미디어 홍보가 함께 추진된다. 특히 오리고기 판매와 유통 실적 상호 공유와 향후 활성화를 위한 공동대응이 기대되고 있다.





김만섭 오리자조금관리위원장  
(한국오리협회장)이 업무협약  
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문길 (주)미트더석세스 대표

한국오리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오리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착한소비 중량단위 판매정착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협력사는 월 단위로 오리고기 납품과 판매실적을 한국오리협회와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에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는 한편 향후 계획을 함께 성실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 포차천국에 오리고기 신메뉴 출시

프랜차이즈 대표주자로 참여한 (주)미트더석세스는 대표브랜드인 포차천국에 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오리고기 메뉴 추가를 기획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170여개 포차천국에 신메뉴 레시피를 기획하고 총 20여 회의 실무진과 협력업체 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포차천국에서는 총 6종의 오리고기 메뉴를 신규 개발하고 테스트를 거쳤다. 그간 오리날개 후라이드, 오리가슴살 탕수육, 오리 토네이도 꼬치, 오리훈제 장작구이, 오리훈제 볶음밥, 오리주물럭 등의 다양한 메뉴를 공동기획하고 레시피 개발을 추진했다. 지난 8월 24일 최종 대패 오리불고기를 신규 추가 메뉴로 확정하고 매콤한 맛과 간장 맛 두가지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오리고기 추가 메뉴에 따른 소스 개발과 공급방안 기획을 통해 9월 25일 포차천국 5개 매장 오리고기 메뉴 상품화 런칭이 실시됐다.



김만섭 위원장을 비롯한 업무협약 당사자들이 협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다



포차천국에서는 총 6종의 오리고기 메뉴를 신규 개발하고 테스트를 거쳤다. 김만 섭 회장을 비롯한 최문길 대표 등이 직접 시식을 하며 메뉴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대패오리불고기(가)가 신규 추가 메뉴로 확정됐다.

## 유명 셰프 참여 '착한소비' 공동캠페인

이번 업무협약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착한소비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리농가와 계열사, 외식업 프랜차이즈가 동반성장 모색을 위해 공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실력과 인지도가 높고 포차천국 프랜차이즈와의 콘셉트에 부합된 이재훈 셰프가 참여해 캠페인과 마케팅을 공동 기획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캠페인 강화를 위해서는 구독자 수가 높은 먹방 유튜버 등과 콜라보를 진행해 신개념 마케팅을 기획하고 있다. 코로나19시대, 집객행사 자체가 어려운데다 모객이 어려운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적의 마케팅이 아닐 수 없다.

먼저 한국오리협회·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와 포차천국이 공동으로 오리고기 메뉴 개발과 런칭을 하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공동 개발한 오리고기 메뉴인 오리 주물럭과 대패 오리불고기 등을 이재훈 셰프가 메뉴 디렉팅을 하고 개발·코칭하는 전 과정을 먹방 유튜버 쏘영과 함께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는 것이다. 먹방 유튜버 쏘영은 구독자 414만의 유명 유튜버로 배우 출신이다.

이번 온라인 콘텐츠는 이재훈 셰프가 출연하기도 한 인기 프로그램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콘셉트로 구성하며 쏘영 유튜버 채널을 통해 콘텐츠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재훈 셰프



## 특별인터뷰

김만섭 오리자조금관리위원장(한국오리협회장)

외식산업 확대위한  
신규시장 창출  
외식업 프랜차이즈와  
동반성장 기대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불황 타개와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대응과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기회와 활로를 모색하고 오리고기 판매확대를 통한 외식산업 신규시장 창출, 오리고기 중량단위 판매정착과 외식업 프랜차이즈와의 상호 동반성장을 위한 유기적인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오리고기 중량 단위 판매 정착과 외식프랜차이즈에서의 오리고기 추가판매로 2020년 외식산업 사업 확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공동마케팅을 통한 상호 동반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오리고기 외식업 확대  
‘티핑 포인트’  
중량단위판매 캠페인  
소비촉진 도움



“그간 성실하게 노력해온 오리협회의 열정에 퍼즐이 맞춰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오리고기 외식산업 판매확대를 통한 오리산업 견인과 코로나19사태에 따른 경기불황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티핑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리고기 중량단위 판매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오리가 더욱 친숙하고 오리고기 소비촉진에도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와 생산자, 셰프와 외식업체 등이 오리고기에 애정을 갖고 도와주면 분명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에 좋은 오리고기를 많이 먹어서 국민들에게 저항력이 생겨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동반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인식·협력 전국 170개 점포에서 오리메뉴 판매

최문길 (주)미트더석세스 대표



“저는 평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성공하면 우리도 성공한다는 신념으로 일해 왔습니다. 동반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포차천국을 전국 170개 점포로 확대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실시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통받는 오리산업과 외식산업이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평소 오리고기의 우수성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몸에 좋고 건강한 오리고기를 홍보하고 전국 170개 점포에서 오리고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고급 식재료 오리...다양한 레시피 개발 전국민이 사랑하는 메뉴로 승화

이재훈 셰프



“많은 행사에 참여했지만 이번 행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리고기와 함께하는 행사라서 더욱 행복합니다. 사실 오리는 우리나라 보다도 외국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유럽에서 생활할 때도 오리고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오리고기가 고급 식재료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맛있는 오리고기 레시피를 많이 만들어서 오리고기를 국민들이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업무협약로 오리고기 메뉴추가 확대를 통해 외식산업 성장과 오리고기 유통, 판매량 확대, 신규 오리고기 판매시장 창출 등이 이뤄지길 바랍니다.”